

당신이 엮본 건 쇼(show)인가, 삶인가?

'시선'이란 관점에서 토크쇼 관찰 예능, SBS <미운 우리 새끼>

김정경

1. 시선이 하나 있었다: 이 시대의 피핑 톰, 그래서 시청자에게

영주인 남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무거운 과세 부담을 지우자, 사려 깊은 아내 고다이바(Godiva)는 남편에게 세금을 낮춰줄 것을 간청한다. 그러나 남편은 타인을 생각하는 아내의 고귀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간교한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건 바로 나체로 말에 올라 마을을 한 바퀴 행진하고 온다면 아내의 제안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고다이바는 거리낌 없이 이를 행동으로 옮겼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자신들을 위해 수치심을 감수한 부인의 숭고한 마음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모든 창문을 내려 걸고 부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창문 너머에 숨어 이

를 숨죽이며 지켜보는 시선이 하나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 마을의 재단사 톰(Tom)이었다.

‘몰래 훑쳐보는 자’, ‘관음증’을 의미하는 피핑 톰(peeping Tom)이란 단어의 유래가 된 전설의 내용이다. 그런데 중세 영국을 살던 ‘훑쳐보는 톰’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특정 집단의 모습과 묘하게 같아든다.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창 너머로 타인의 사생활을 흥미롭게 엿보는 시청자, 바로 우리의 ‘시선’에 대한 정확한 은유가 아닐는지.

방송국의 스튜디오와 야외 세트장을 가득 메웠던 대포같이 커다란 카메라는 쉬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아져 이제 연예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안으로 파고들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탓에, 시청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방송가를 장악한 이 같은 프로그램 트렌드를 아울러 ‘관찰 예능’이라 명명하곤 하는데, 다매체·다채널 시대에도 불구하고 평균시청률 20%대를 기록하며 인기 순항 중인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를 통해,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관찰 예능의 맨얼굴을 조망해보려고 한다.

2. <미우새>를 관통하는 세 가지 시선

<미우새>의 포맷은 단순하다.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최근의 사회상을 반영해 혼자 사는 남자 연예인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먼저 방송을 시작한 MBC의 <나 혼자

산다)의 구성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후발 주자 <미우새>는 여기에 한번의 변주를 주는데, 그것은 바로 연예인 아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시선을 엮는 것이다.

<미우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획 의도와 프로그램의 부제이기도 한 ‘다시 쓰는 육아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당신은 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어머니들에게 던지는 것이다.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분가를 하여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는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자식은 여전히 품 안의 어린 자녀와 같이 여기는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의 남다른 자식 사랑(?)이 반영된,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발상인 것이다.

이 같은 포맷의 특성상 <미우새>에서의 ‘관찰’은 크게 세 가지 시선을 내포한다. 먼저 첫 번째는 카메라가 4명의 다른 개성을 가진 연예인의 일상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부지런히 좇는 시선이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대상의 움직임, 내뱉는 말 한 마디, 표정 변화, 그 안에 내포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두 번째 시선은 아들의 일상이 녹화된 영상을 스튜디오에 모여 앉아 시청하는 어머니들의 것이다.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하던 아들의 낯선 모습을 조우할 때면 기함을 토하며 “어머 어머 어머”, “잘~ 한다”, “재가 왜 저럴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리액션을 연발하는,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연예인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보통의 어머니들의 시선, 바로 그것 말이다.

마지막은 이 둘 모두를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시청자의 시선이다. 화려하게만 보였던 연예인의 삶이 나의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서 오는 공감, 때론 허술하고 모자라 보이기까지 한 스타의 행동과 어머니들에겐 그들 역시 천덕꾸러기 아들에 불과하며 자식 걱정을 연발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그래, 어쩌면 나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하는 묘한 안도감과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관찰자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닐까? 시청자인 우리가 자신의 삶이나 존재는 드러내지 않은 채 출연자들의 머리 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자’로서 시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에 느낄 수 있는 ‘은밀한 쾌감’ 말이다.

관찰 예능에서 ‘관찰’이란 말이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상정에 있다. 앞서 살펴본 <미우새>의 세 가지 시선을 통해 본다면 관찰 대상은 명백히 연예인 아들 4인방이며, 시청자의 시각에서는 이에 추가해 이들의 어머니 4인방이 포함된다.

결국 연예인들의 내밀한 사적 공간에 몰래 잠입한 카메라는(첫 번째 시선), 어머니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두 번째 시선), 최종 시선의 주체인 시청자, 즉 나를 위한 것이라는 데서 오는, 마치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우뚝 선 최종 포식자와 같이 시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묘한 쾌감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하기 때문이다.

3. 시청자들은 관찰 예능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청자들이 진정 <미우새>를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청자들이 진정한 관찰 예능의 주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연예인 4인방이 순수한 관찰의 대상일 뿐이라면 그들은 고스란히 ‘보여지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선을 보인 후 금요일 밤 시간대 정규 편성으로 자리 잡던 초창기의 <미우새>에서는 일정 부분 시청자들은 관찰 주체의 위치를 향유했다.

연예인 출연자들에게 밀착된 카메라를 통해 연예인이 아닌 누군가의 아들로, 40대 전후의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과 고민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혼자 사는 독거 청년을 바라보는 찐함과 나이 많은 아들이 올해에는 장가를 갔으면 하는 어머니들의 소망이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에 재단된 영상이긴 했지만, 어쨌든 가공된 버라이어티쇼보다는 소프트한 인간극장류에 더 가까운 잔잔한 일상이 표현됐다.

일례로 동료들의 주선으로 미팅이나 소개팅에 나서본다거나, 친구의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가서 느끼는 소회를 토로한다거나, 자전거, 피규어 수집이나 청소처럼 자신이 평소 하는 취미 생활과 습관이 전파를 타고 시청자들에게 보여졌다.

물론 아무리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예능의 제1미덕은 의심의 여지없이 ‘재미’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기획과 편집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음새의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잘 봉제된 매끄러운 옷 한 벌을 만든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우새>를 보다 보면 앞서 말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관계가 어느 순간 전복되어버리기 일쑤다. 특히 연예인 4인방이 기행(奇行)을 벌이면서 순간순간 방 안에 배치된 카메라에 정확히 눈 맞춤

을 하는 순간이 그러하다. 관찰 대상이 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나 홀로 열쇠 구멍으로 대상을 훑쳐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열쇠 구멍 맞은편에서 불쑥 상대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당혹스러운 상황과도 같은 느낌이랄까.

언제부터 연예인 4인방은 일상의 삶이라기보다는 기획된 한 편의 쇼(show)에 가까운 사건 보여주기에 치중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황당한 사고를 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탈을 감행한다.

이 순간 과연 관찰자는 누구이며, 관찰 대상은 누구라고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보여주는 것을 그저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있지?’라고 말하는 듯, 한 번씩 카메라의 정면을 응시하는 연예인 4인방의 눈동자에서 반짝하고 주체성이 빛나는 순간, 훑쳐보던 시청자의 위치는 흔들린다. 그리고 연예인 4인방의 시선은 곧 그들의 배후에 있는 제작진의 시선이기도 하다.

결국 연예인의 숨겨진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제작진과 출연자가 기획한 잘 짜인 버라이어티쇼를 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시청자를 진정한 관찰 주체의 자리에서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몰래 숨어 은밀히 훑쳐보던 자에서, 자신의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낸 채 쇼에 초대받아 불려온 자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과정을 수동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자로. 시청자는 결국 관객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오야 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1990년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미 보아왔다. VCR 영상을 보며 패널들이 스튜디오에서 답소를 나누고, 그들을 지켜

보며 웃고 박수쳐 주던 방청객들의 모습 말이다. ‘관찰 예능’이라는 가장 ‘핫’한 포맷의 화장을 지우고 보니, 구식 예능이 ‘속았지?’ 하고 조롱하듯 웃고 있다.

4. 관찰은 성찰을 불러오는가?

제작진이 말하는 <미우새>는 “엄마가 화자가 되어 아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육아일기라는 장치를 통해 순간을 기록하며, 이를 통해 유쾌하고 따뜻한 웃음과 몽클한 감동을 주겠다”는 취지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모습은 박물관 속 유물처럼 남았고,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보는 1인 시청 형태가 굳어진 오늘날 <미우새>는 부모·자녀 세대를 함께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들이 수 있고, 그들에게 어찌면 함께 나눌 이야깃거리를 던져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처럼 <미우새>에서의 일상 관찰 행위의 소구는 그저 호기심의 충족이나, 단순한 재미 추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미우새> 카메라를 통해 연예인으로서 화면에서는 좀처럼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직업적 고민이나,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생각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등을 엿볼 기회가 주어졌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다.

내가 관찰의 진정한 주체였다면, 또한 내가 엿본 게 쇼(show)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었다면 관찰은 성찰을 불러올 수 있지도 않았을까?

〈미우새〉라는 예능을 통해 나와 비슷한 누군가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일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모님과과의 관계를 떠올리고, 혼자 사는 주변 사람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찰 말이다.

5. 다시, 피핑 톰에게

고다이바 부인을 몰래 지켜보던 음탕한 시선, 다시 피핑 톰의 이야기로 돌아와보자면 그의 최후는 눈이 멀어버리는 비극으로 끝맺는다.

오늘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 본 것은 무엇인가? 스타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무엇을 입고, 어디를 가는지, 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지 않았던가?

〈미우새〉가 끝나는 일요일 밤, 누군가에게는 한 주의 시작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한 주의 마감일 그 시간. 그들의 일기 아닌 일기가 마감되었으니, 이제 남의 인생은 그만 훑쳐보고 당신의 일기를 쓸 차례다.

〈미우새〉라는 방송을 통해 나의 삶도 쓰다듬고, 부모님과과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타인의 삶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다행히 〈미우새〉는 1주년을 넘어서도 아직 인기리에 방영 중이고, 무엇보다 우리 아직, 눈멀지 않았으므로.